

대도시내 영농조건 불리지역의 농업경영 특성

—대구광역시 본리마을을 사례로—

우 중 현*

대도시내의 농업경영이 시장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은 필연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에 의존하는 산업이므로 농업경영에서 자연적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다. 사례연구를 통해 대도시내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경영 특성을 고찰한 본 연구에서 경제적 측면의 농업경영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자연적 제약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주민의 생활측면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이 더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됨을 확인하였다.

농업노동력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보완하는 위탁 영농은 결과적으로 개별농가의 영농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영규모와 형태는 경영주의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받으며, 토지이용은 자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히 일사량 및 수리시설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함과 열악한 영농조건 및 낮은 영농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자급적 생계유지 목적의 영농과 촌락공동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불리한 자연적 조건은 영농의 상업화를 제약하여 영농목적의 이주를 제한하고 농가경제의 영세성과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정책적인 지원과 재배작물의 보급이 없는 한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농업지역은 대도시내에 위치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주요어 : 농업경영, 영농조건, 임대차농지, 접근성, 조건불리지역

1. 서론

1) 연구목적

농업은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산업으로서 인류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경제활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 농촌지역의 유지, 전통문화의 보전과 식량안보의 측면에서도 다양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필수적인 산업으로서의 지위나 공익적 측면의 외부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성은 해마다 낮아지고 농촌지역은 더욱 과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산업화 이후 국내적으로는 경지면적의 감

소와 더불어 급격한 농가인구의 유출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 작물의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곡물재배면적이 현저히 감소하여 식량자급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쌀의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곡물재고량의 부족은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식량공급의 안정성마저 위협하고 있다(이재욱, 2000).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은 UR협정에 의해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점진적인 감축을 통한 농업개혁을 요구받고 있으며(허길행, 2000),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개방화되고 국제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국내농업은 국제분업의 원리에 따라 재편될 것이며 세계시장의 수급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정은 다소의 비판적 견해도 불구하고 쌀의 자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업농의 규모확대를 통한 경쟁력강화가 기본농정이었다(오내원, 1999). 그 결과 주 관심대상은 도시지역이 아닌 평야지역이었으므로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1990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농가수의 2.85%, 전체 경지면적의 2.23% 정도가 대도시내¹⁾에서 경영되고 있다. 그러나 광역도시체제로 전환된 1995년에는 전체 경지면적과 농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내에서는 농가 수와 경지면적이 1990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는데, 전체 농가수의 4.23%, 전체 경지면적의 3.65%가 광역시 행정구역내에서 경영되고 있다²⁾.

그러나 정책의 의사결정과 수행과정에서는 전체 산업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도시내의 농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에서 불리한 여건을 가진 대도시내의 농업활동은 위축을 경험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자연적 조건마저 불리한 지역은 시장과의 높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농업여건과 낮은 생산성으로 농업이 축소되고 휴경지화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주거환경의 악화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농민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식량자급률의 저하를 초래하여 새로운 국가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농촌보다 도시의 산업부문에 관심이 치중되었고, 농촌지역 중에서는 자연적 조건이 유리한 대도시 주변의 상업적 작물재배지역이나 원교의 순수농업지역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대도시내의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농업지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도시 행정구역내의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농업지역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실태와 주민생활을 고찰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농촌의 파소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도시 행정구역내에서도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농업지역의 농업경영특성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별농가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여 미시적 접근을 통한 행태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업경영의 기초가 되는 농업노동력은 경영주와 농가단위의 노동력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농업경영특성은 토지와 재배작물의 특성으로 구분하였는데, 토지특성은 소유형태에 따라 다시 구분하였다. 경영규모는 개별 경영주의 기술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나타난 실제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주민생활은 개별농가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였으며 이장과의 면담에 의해 보완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지역내의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면담조사를 하였는데, 사례지역의 분석대상 농가는 25가구이다. 마을은 비농가 5가구를 포함하여 30가구로 구성되었지만, 비농가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4가구의 空家와 더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례지역에 대한 실체조사는 3차례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2000년 5월 27일의 예비조사를 거쳐 동년 6월 26일과 27일에 걸쳐 본 조사³⁾가 시행되었으며, 7월 15일에는 이장과의 면담을 통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지역의 선정은 경상북도에 속해 있다가 1995년에 실시된 행정구역 조정으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달성군 화원읍 본리 2리⁴⁾로 하였다.

3) 사례지역 개관

화원읍 소재지가 위치한 국도 5호 선으로부터 약 5.4km 떨어져 있는데, 최근 들어 읍 소재지에서 대규모 주택단지개발로 각종 편의시설의 보급과 함께 인구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형성시기는 2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⁵⁾되는데, 취락은 해발고도 200m 정도의 산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락의 좌·우측과 동쪽으로는 해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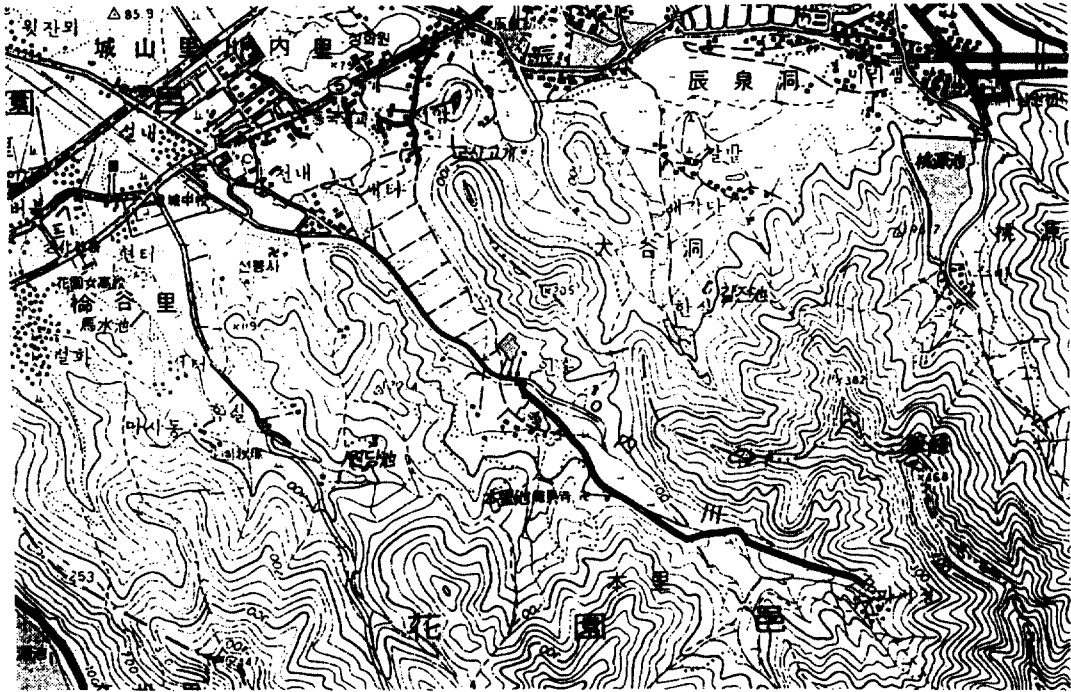


그림 1. 사례지역 지형도(1 : 50,000)

도 500m~600m의 산들로 둘러 싸여 있고 마을의 앞쪽과 남서쪽의 완사면을 따라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다. 개별농가의 가옥은 산록에 위치한 지형특성상 규모가 40~50평 정도로 작고 마을안의 도로는 시멘트 포장되어 있으나 경사가 심하다.

과거에는 농가수가 40여 호에 달한 적도 있으나 지금은 일부가 폐허화되고 4가구는 空家로 남아 있으며 비농가 5가구를 포함하여 30가구에 불과하다. 농가율은 83.3% 인데, 비농가 5가구는 고향이라는 이유로 2개월 전에 이주한 회사원 1가구를 포함하여 소유농지가 전혀 없는 60세 이상의 여성단독구성세대 3가구와 사찰이다.

농경지와 취락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내에 위치해 있어서 토지의 전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농경지의 경우 경사가 심하며 배미 규모가 작고 경지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곡에 위치하여 일사량이 적은 편이다. 저수지로부터 용수공급이 가능한 넓은 들, 더덕실, 서거들 등에서는 논의 토지이용이 지배적이지만, 용수공급이 제한적인 마을 앞의 양지밭과 밭에골, 마을 뒤의

섬무등 등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자급적 농업의 성격이 강하다. 동쪽촌의 성격이 미약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인구의 전출입은 활발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현재 하루 5차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2. 농가특성

21세기는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 그리고 지식사회로 변화되면서 농업에서도 컴퓨터 기술과 결합된 로봇에 의한 무인농장의 등장으로 '농민이 필요 없는 농업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통적인 농업의 투입요소 가운데 자본과 노동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강조되고 있다(허길행, 2000).

우리나라는 집약적인 토지이용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가족노동력 중심의 농업을 유지해 왔는데, 산업화이후 농가인구의 선별적 이출은 농업노동력의 양적 부족뿐만 아니라 질적 악화를 초래하였다. 본 절에서는 대도시내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대도시내 영농조건 불리지역의 농업경영 특성

농업지역의 개별농가 노동력을 경영주특성과 경영주의 연령에 따른 농가단위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1) 농가 경영주 특성

사례지역 농가의 경영주 특성을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표 1. 농가경영주 특성

연 령	경영주 수	초졸이하 경영주 수	본리고향 경영주 수*	전직여부
40세~50세	6 (24.0)	1	5(1)	3
50세~60세	1 (4.0)	0	1	1
60세~70세	14 (56.0)	12	14(2)	1
70세 이상	4 (16.0)	4	1	1
계	25(100.0)	17	21(3)	6

* ()는 여성 경영주로서 사례지역 사람과의 결혼과 동시에 본리에 정착한 경우

사례지역 농가의 전체 경영주 가운데 최소 연령은 43세이며 최고 연령은 79세인데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0.5세로 노령화 되어 있다. 한편 사례지역 농가의 경영주 중에서 여성 경영주는 3가구로서 전체 농가의 12.0%를 차지한다. 이들 여성경영주는 결혼과 동시에 사례지역내에서 거주하다가 남편과 사별후에도 재혼하면서 영농을 지속하는 경우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7.3세로서 전체 경영주의 평균 연령 60.5세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경영주의 영농지속기간과 사례지역내의 거주 지속기간을 볼 때 10년 미만인 농가는 사업실패나 부모 사망 후 고향으로 귀향한 3가구이며 이들 경영주는 연령이 44세와 53세로 상대적으로 젊다. 반면에 전체 농가의 76%인 19가구는 영농지속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길게 나타난다.

경영주의 연령분포에서 40세 미만인 농가는 전혀 없고 60세 이상 농가가 전체의 72%에 이른다. 특히 사례지역내에서는 60세에서 70세 사이 연령층 경영주의 비율이 높다. 경영주의 학력분포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경영주 비율이 68%인데,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약 90%를 차지하여 특히 높다. 그러므로 경영주의 연령분포나 학력분포의

측면에서 볼 때 사례지역 농가의 경우 오랜 영농지속기간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은 대체로 낮다고 판단된다.

본리가 고향인 경영주는 18가구이며, 여성경영주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사례지역에 거주하였으므로 이를 포함시키면 전체 농가의 84%인 21가구에서 사례지역이 경영주의 고향으로 나타난다. 고향이 사례지역 이외인 경영주를 연령층별로 분석하면 4

년 전에 도시에서 현지로 이주한 후 임차영농을 하는 40대의 한 가구⁷⁾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분포한다. 이러한 사실은 농업이외 타 산업부문의로의 취업이 제한적이었던 과거에는 비록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일지라도 생계유지를 위해 영농목적의 이주가 발생되었지만, 타 산업부문의로의 취업기회가 많고 타 지역의 영농조건이 개선된 이후에는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의 영농목적 이주가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경영주의 전직여부에 있어서는 전체 경영주의 24%인 6가구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을 가진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연령층에 걸쳐 분포한다. 그러나 젊은 연령층일수록 전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경영주의 연령이 60세 미만인 농가의 절반이상이 농업이외의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다. 이들의 이전 직업은 상업을 포함한 자영업(4가구)과 회사원(2가구)으로 나타났으며, 귀향 이유는 사업실패 후 고향으로의 귀향(3가구)이나 부모 부양을 위한 귀향(3가구)이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대도시내의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농업지역은 농업경영주의 오랜 영농경험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노령화되어 있어서 농업노동력

의 질적 수준은 낮은 편이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농여건은 사례지역과 연고가 없는 외지인의 영농목적 이주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농가 구성원 특성

개별농가의 농업경영특성은 가족의 구성과 노동력을 고려한 경영주의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표 2>는 사례지역 농가의 가구원 속성을 경영주의 연령층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구원 수 전체가 재촌하는 반면 60세 이상의 농가에서는 가구원 중에서 일부가 촌외 거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촌외 거주자는 통근이 불가능한 원거리의 직장관계(2명)와 장애인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1명)로서 취학 등의 목적으로 촌외 거주를 하는 경우는 미약하다.

우리나라의 농업노동력은 가족중심이며 그 중에서도 부부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우종현, 1996). 사례지역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촌 가구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부중심의 농업노동력 특성을 보이는

표 2. 경영주 연령별 농가 가구원 속성

()는 가구당 평균

경영주 연령	가구원 수	재촌 가구원 수	농업노동력 수
40세 ~ 50세	25(4.2)	25(4.2)	10(1.7)
50세 ~ 60세	4(4.0)	4(4.0)	2(2.0)
60세 ~ 70세	42(3.0)	40(2.9)	28(2.0)
70세 이상	14(3.5)	13(3.3)	8(2.0)
계	85(3.4)	82(3.3)	48(1.9)

사례지역 25농가에서 출가자와 군입대자를 제외한 전체 가구원 수는 85명으로서 평균 가구규모는 3.4명이다. 연령층별 가구원 수는 경영주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젊은 40세~50세의 경우가 가구당 4.2명으로 가장 많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는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자녀가 출가하여 가구원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주의 연령층이 70세 이상의 농가에서는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3.5명으로 오히려 높아진다. 이것은 부모의 연령층이 노령화되면서 결혼한 장남과 같이 거주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원 수 85명 중에서 재촌인구율은 96%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사례지역이 대도시의 행정구역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에서 학구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통학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재촌하면서 취학하고, 취업자의 경우도 승용차의 보급으로 거리제약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례지역내에 거주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경영주 연령층별로 전체 가구원 수와 재촌 가구원 수를 비교할 때 6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가

것은 재촌하는 자녀가 취학중이거나 촌외의 비농업 부문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도시내에 위치한 농업지역은 제도적 측면에서 대도시와 동등한 혜택이 가능하며 자동차의 보급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재촌하는 인구비율이 높다. 그러나 높은 재촌인구율에도 불구하고 농업노동력은 여전히 부부중심의 가족노동력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농업경영특성

1) 경영지 특성

농업체계에서 영농규모와 소유 및 경작농지의 공간분포는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요소로서, 농지소유와 점유방법의 이해는 농업지리학 이해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IR. Bowler, 김기혁 역, 1999). 농가의 소득수준과 규모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농가의 영농규모는 농지의 소유권변동과 임대차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며, 경작농지의 집중도나

대도시내 영농조건 불리지역의 농업경영 특성

농가에서의 접근성은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투하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사례지역 농가의 경영규모특성을 소유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고찰하고, 경영농지의 토지특성은 농가에서의 접근성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다.

(1) 경영형태와 규모

<표 3>은 사례지역 농가의 경영형태를 경영주 연령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3. 경영주 연령별 경영형태 (단위 : 호)

경영주 연령	순수 자경농가	자경 및 임차농가	순수 임차농가	계
40세~50세	0	4	2	6
50세~60세	0	0	1	1
60세~70세	3	8	3	14
70세 이상	2	2	0	4
계	5	14	6	25

전체 25농가 중에서 재촌 임대농가는 전혀 없고 순수 자경농가가 5가구이며, 소유농지가 전혀 없는 순수 임차농가가 6가구이다. 반면에 자경 및 임차농가가 14가구로서 전체농가의 절반을 초과한다. 경영농지의 일부라도 임차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80%로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공간에서 농지임대차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급격히 증가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례지역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⁸⁾.

그러나 경영주의 연령별로 농업경영형태를 고찰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경영주와 노령화된 경영주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례지역에서 60세 미만의 경영주에서는 순수 자경농가가 전혀 없이 농지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경영하고 있다. 그러나 70세 이상의 경영주 연령층에서는 소유농지가 전혀 없는 순수 임차농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영농의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사례지역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자녀교육 등의 가계지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가 노동력의 연소를 위해서는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서라도 경영규모를 확대시키는 반면, 노령화된 연령층에서는 부족한 노동력

과 더불어 가계비 지출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임차에 의한 농업경영이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개별농가의 경영지를 소유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면 임차지가 전체 경영지의 53.6%인 18,604평으로 더 많아서 자경지의 비중이 우세한 우리나라의 일반적 경향과는 상이하다. 이러한 특성은 사례지역의 지가변동 및 열악한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다. 사례지역에서 1980년 이전까지는 농지의 가격이 논과 밭 구분 없이 평당 5,000원 정도로 형성되었으며 농지의 매매는 미약했다. 그러나 1980년대 증반이후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대수익이 높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외지인의 토지 매입이 증가하면서 논은 평당 20,000원으로, 밭은 평당 15,000원 정도로 가격이 급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가 활발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의 농민은 주로 외지의 비농업인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은 다른 곳의 농지를 대토하거나 농업기반조성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부채의 청산에 소요되었다. 이때의 농지거래가 현지의 농업인보다는 외지의 비농업인과 주로 이루어진 것은 사례지역 농가의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농지의 매입이 곤란했으며, 외지의 농업인은 토지가격에 비해 영농의 자연적 조건이 불리하였기 때문에 농지매입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또한 외지의 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매할 경우 매매후에도 경작은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농지소유권의 변동은 사례지역 농가로 하여금 무전농민으로 전락하는 기초가 되었고, 그 이후 농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⁹⁾에 비해 농가수익성의 악화는 농가의 농지매입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자경지보다는 임차지가 많은 지역특성을 나타낸다.

토지는 소유단위인 필지와 경작단위인 배미 혹은 폐기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데(김기혁, 1991), 사례지역에서는 지형적 제약으로 동일 필지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배미로 세분되어 경작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영농지의 배미 수에 중점을 두고 개별농가의 경영주 연령별 경영규모를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전체 경영규모는 34,696평으로 가구당 평균 경영규모가 약 1,388평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가 평균 경영규모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표 4. 경영주 연령별 경영규모

(면적단위 : 평)

경영주 연령	경영규모(A=B+C)				자경지(B)				임차지(C)				휴경지 면적
	면적	농가당 평균규모*	배미 수	배미당 규모	면적	평균자 경규모*	배미 수	배미당 규모	면적	평균임 차규모*	배미 수	배미당 규모	
40세~50세	8,927	1,487.9	38	234.9	3,703	925.8	12	308.6	5,224	870.7	26	200.9	780
50세~60세	1,900	1,900.0	3	633.3	0	0.0	0	0.0	1,900	1900.0	3	633.3	400
60세~70세	20,489	1,463.5	112	182.9	9,859	896.3	50	197.2	10,630	966.4	62	171.5	600
70세 이상	3,380	845.0	23	147.0	2,530	632.5	9	281.1	850	425.0	14	60.7	0
계	34,696	1,387.9	176	197.1	16,092	846.9	71	226.6	18,604	930.2	105	177.2	1,780

* 평균자경규모와 평균임차규모는 각각 자경농가와 임차농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농가당 평균규모와는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의 농가 평균 경영규모보다도 현저히 작다¹⁰⁾. 배미당 평균 규모 역시 197.1평으로서 경지정리가 진행된 농촌지역에 비해 현저히 작다.

경영주 연령별 경영규모를 비교할 때 50세~60세의 경영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연령층은 사례농가 수(1가구)가 적어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7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경영주 연령에 따라서는 경영규모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경영규모가 현저히 작다. 임차지의 경우에도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그 이전의 연령층에 비해 임차규모가 현저히 작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주의 연령이 영농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동력이 노령화될수록 경영규모가 작고 특히 임대차에 의한 농업경영은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농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배미당 평균규모를 비교할 때 자경지의 배미당 평균규모보다는 임차지의 배미당 평균규모가 오히려 더 작다. 이는 산업화 이후에는 부족한 농업노동력과 낮은 농업수익성 때문에 영농조건이 유리한 농지의 임대차가 더 우세한 일반적 경향(우종현, 1996)과는 배치되는데, 개별농가의 소유농지가 적고 영농의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사례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설명이 된다. 즉 사례지역은 개별농가의 소유농지가 적어서 임대차에 의한 경영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농지의 자연적 조건에서는 대체로 열악하다. 이때 영농조

건을 고려하여 보다 유리한 농지를 중심으로 선별적 농지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가 노동력의 연소와 생계유지를 위해 경작 가능한 토지는 무조건적으로 임대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경지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영농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합배미를 통해 규모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임차지의 경우는 비용의 문제¹¹⁾ 때문에 합배미작업이 미약한 것도 임차지의 규모가 작은 원인이다.

한편 사례지역내에서는 재촌 임대농가가 전혀 없으며 농가소유의 휴경지는 1,780평에 불과하지만 현재의 전체 가용 농경지보다 많은 40,000평 정도가 휴경지화 하거나 임야로 복원되었다¹²⁾. 이들 휴경지는 주로 마을 뒤쪽에 위치하며 토지의 대부분은 외지인 소유이다. 그러나 사례지역의 휴경지 발생은 외지인의 토지소유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토지의 자연적 조건에서 유발된 휴경지이다. 즉 개별농가에서는 임대차에 의해서라도 적극적인 영농규모의 확대를 도모하지만, 마을 뒤쪽의 토지는 용수구입이 곤란하며 경사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일사량이 부족하여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영농 희망농가가 없다. 이러한 특성은 가구당 경영지가 부족하여 임차희망 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휴경지의 발생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농지에 대한 수요가 높을지라도 자연적 조건이 극히 불리한 농경지는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도시내 영농조건 불리지역의 농업경영 특성

(2) 자경지 특성
 사례지역 농가의 경영지 중에서 자경지의 특성을 농가접근성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서 1.0km 이상 떨어진 논은 0.5km~1.0km에 위치한 논보다 배미당 평균규모에서도 작아서 불리하다. 배미당 평균규모나 농가와의 접근성에서 이와

표 5. 자경지의 토지특성

(면적단위 : 평)

농가에서의 거리	논			밭			계		
	규모	배미수	배미당규모	규모	배미수	배미당규모	규모	배미수	배미당규모
0.5km 미만	880	8	110.0	4,073	12	339.4	4,953	20	247.7
0.5~1.0km	5,912	24	246.3	1,950	4	487.5	7,862	28	280.8
1.0km 이상	3,277	23	142.5	0	0	0.0	3,277	23	142.5
계	10,069	55	183.1	6,023	16	376.4	16,092	71	226.6

전체 경영지의 46.4%를 차지하는 자경지는 논 10,069평과 밭 6,023평을 합쳐 16,092평인데, 논이 전체 자경지의 62.6%를 차지한다.

지목별 토지특성을 보면 논은 배미당 평균규모가 183.1평인데 비해 밭은 376.4평으로 배미당 평균 규모에서 밭의 크기가 논의 크기보다 2배 이상 크다. 이와 같은 배미당 평균규모의 지목별 차이는 재배작물의 차이에서 기인된다. 즉, 벼를 주로 재배하는 논은 평탄한 지형조건을 전제로 하므로 사례지역의 위치 특성 때문에 배미당 평균규모가 작을 수 밖에 없다. 반면에 밭은 다소의 경사도 제약이 있더라도 작물의 경작이 가능하므로 배미당 평균 규모가 논보다 훨씬 크다.

농가와 경영지간의 접근성에 따른 토지특성을 보면 전체 경영지의 약 80%정도가 농가에서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지목별로 볼 때 논은 농가에서 0.5km 이내의 근거리보다는 그 이상의 원거리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밭의 경우 농가에서 1.0km 이상의 원거리에서는 밭의 토지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0.5km 이내의 근거리에서 특히 우세한 분포를 보인다.

배미당 평균규모는 농가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밭이 상대적으로 근거리의 밭에 비해 훨씬 크다. 따라서 농가와의 접근성에서 불리한 밭은 배미당 평균규모면에서의 상대적인 유리함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 그러나 논은 경우 0.5km 이내의 근거리에서 위치한 논은 배미당 평균규모가 그 이상의 거리에 비해 현저히 작다. 뿐만 아니라 농가와의 접근성에

같은 지목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취락이 경사도가 상대적으로 큰 산록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례지역은 상업적 작물의 재배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농업경영의 주목적이 생계유지에 있기 때문에 영농조건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주곡으로서의 벼농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3) 임차지 특성

<표 6>은 사례지역 농가의 경영지 중에서 임차지의 특성을 농가접근성과 비교하여 지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임차지는 논 11,884평과 밭 6,720평을 합쳐 총 18,604평이다. 이중 논은 비중은 63.9%로서 자경지에 비해 논의 비중이 약간 높다.

지목별 토지특성을 보면 논은 배미당 평균규모가 141.5평인데 비해 밭은 320.0평으로 밭의 크기가 논의 크기보다 2배 이상 큰 것은 자경지의 토지특성과 유사하지만, 논과 밭 모두 자경지에 비해 배미당 평균규모가 작다. 이러한 임차지의 토지특성은 사례지역의 경우 배미당 규모면에서 영농조건이 보다 유리한 토지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임대차되는 것이 아니라 경지면적의 부족 때문에 영농조건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임대차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농가와 경영지간의 접근성에 따른 임차지의 토지특성을 보면 전체 임차지의 92.6%가 농가에서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경지의 그것과 비교할 때 농가접근성에서는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타

표 6. 임차지의 토지특성

(면적단위 : 평)

농가에서의 거리	논			밭			계		
	규모	배미수	배미당규모	규모	배미수	배미당규모	규모	배미수	배미당규모
0.5km 미만	1,330	9	147.8	2,300	7	328.6	3,630	16	226.9
0.5~1.0km	9,184	68	135.1	4,420	14	315.7	13,604	82	165.9
1.0km 이상	1,370	7	195.7	0	0	0.0	1,370	7	195.7
계	11,884	84	141.5	6,720	21	320.0	18,604	105	177.2

나는데, 이것은 사례지역의 경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독가촌에서 경지를 임차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지와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목별로 볼 때 논은 농가에서 0.5km이내의 근거리보다는 그 이상의 원거리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농가에서 1.0km이상의 원거리에서는 밭의 임차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은 자경지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밭의 경우 농가에서 0.5km이내의 근거리보다는 그 이상의 원거리에서 오히려 우세한 분포를 보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농가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밭은 배미당 평균규모에서도 더 불리하다. 이것은 경지의 절대면적이 부족한 사례지역에서는 배미당 평균규모를 비롯한 영농조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노동력의 연소와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임차지의 증대에 의한 경영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2) 토지이용과 변화

(1) 토지이용

사례지역은 오랫동안 벼농사와 밭농사가 혼합된 주곡위주의 자급적 농업을 유지하고 있다. 경지의 분포를 볼 때 산록부에 위치한 취락을 중심으로 취락의 뒤쪽은 상대적으로 급경사로서 밭을 형성하고 있는데, 수로와의 접근성이 낮고 특히 일사량이 부족하여 거의 대부분은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임야로 복원되었다.

마을 앞으로는 진입로를 따라 밭이 분포하며, 마을 건너편 남쪽사면에는 상류부에 위치한 저수지(용문지)의 수로를 통해 논으로 이용된다. 이들 논과 밭의 분포지역은 경사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논으로 이용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는 오히

려 경사도가 더 심하다. 따라서 사례지역의 토지이용은 경사도보다는 수리시설과의 접근성이 토지이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사례지역내에서 경사가 심하더라도 수로와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비록 배미의 규모가 작더라도 벼농사를 짓기 위해 논으로 개간해 온 과정과 관련이 있다.

재배작물은 경지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논에서는 벼의 재배가 이루어지며, 밭에서는 채소류와 깨, 콩, 고추 등이 농가소비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토지이용율은 벼를 재배하는 논은 전부가 1모작으로 100%이며, 밭은 그루갈이를 통해 최대 200%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상업적 작물 재배지역에서는 특정 재배작물의 조건을 고려하여 농지임대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경지와 임차지간에 재배작물의 차이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사례지역에서는 자급적 농가소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여부에 따라 자경지와 임차지간에는 재배작물의 차이가 없고 지목에 따라 다를 뿐이다.

(2) 토지이용의 변화

자급적 주곡생산을 위주로 하며 휴경지가 많은 사례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재배작물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휴지를 활용한 약초재배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는 홍화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배 첫해의 노지재배에 따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1999년부터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재배를 하고 있다.

홍화는 4월 10일 경부터 4월 말경까지 밭에다 정식을 한 후 7월 말경부터 8월 초순에 걸쳐 수확하는데, 작황에 따른 변동은 있지만 300평 당 수확량을 기준으로 약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

다. 이는 타 재배작물에 비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례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상업적 목적의 재배작물이기 때문에 짧은 보급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체 25농가 중에서 2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¹³⁾. 그러나 경지의 절대면적이 부족하고 배미의 형태가 불규칙한 사례지역의 특성상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토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농가의 경제사정에 따른 자금부족 때문에 사례지역 내에서 홍화재배의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⁴⁾.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공간은 주곡위주의 자급적 영농에서 상업적 영농으로 그 성격이 급격히 변화해 왔다. 특히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는 대도시에서의 수요증가에 따라 채소류를 비롯한 상업적 작물의 재배가 급증했다. 그러나 사례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보급된 홍화의 시설재배를 제외하면 해발고도 250m 이상 되는 계곡의 상류 부근에서 약 300여 평에 이르는 청정미나리의 시설재배가 상업적 작물의 전부이다.

사례지역이 대도시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영농의 상업화가 이처럼 미진한 것은 토지특성상 영농조건이 불리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최근의 교통 발달에 따라 상대적으로 원거리의 대도시 주변지역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경지의 조건에서 볼 때 경사도가 심하고 배미당 평균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례지역과는 달리 평야지역은 경지정리가 진척되었고 배미당 평균규모도 훨씬 커서 농기계의 사용이 용이하여 채소류를 비롯한 상업적 작물의 대규모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사례지역에서는 시장출하를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때 영농조건이 보다 유리한 지역과 같은 종류의 작물을 재배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점이 토지의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비록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유리하더라도 상업적 영농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사례지역과 같은 영농의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영농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친환경적 영농방법을 도입하여 작물을 생산함으로써 타 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을 확보한 후, 소비자와의 직거래나

품질을 보증하는 생산자 표시방법,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유통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지역에서는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와 자본축적의 한계에 따라 유통구조의 개선이나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작물을 재배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농업노동력의 대체나 정책적인 지원과 재배작물의 보급이 없는 한,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대도시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상업적 영농에는 한계가 있다.

4. 주민생활과 만족도

촌락은 인간의 모습살이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생활공간의 한 형태이다. 인간의 생활은 공간을 점거, 소유하는 과정에서 자연, 사회, 경제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형태가 결정되어진다(김기혁, 1991)고 할 때, 개별 농촌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가옥과 농경지를 기초로 하는 경제공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도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사례지역 농가의 농업노동력 공급과 주민의 생활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이용된 농가수는 전체 25농가 중에서 무응답이 많은 2가구를 제외한 23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개별농가의 농업 노동력 공급방법에서 품앗이나 현금에 의한 고용노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전체 농가가 가족노동력에 의존하면서 농작업의 일부분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업노동력의 공급특성은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일반적 경향이다. 사례지역에서 농작업의 위탁은 발농사에는 거의 없고 논농사에 집중되고 있는데, 논갈이 및 로타리 작업과 모내기 그리고 탈곡작업에서 주로 위탁이 이루어진다. 이들 작업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노동력부족에 따라 농기계의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사례지역의 경우 농기계를 구입하기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구당 경영규모가 작아서 농기계를 보유하더라도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농기계의 보급이 적은 것¹⁵⁾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탁영농의 확대는 농업노동력 부족문제를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농가의 영농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¹⁶⁾

현재의 농업경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노동력 부족과 영농조건의 열악함을 지적하는 농가가 각각 9가구로서 대다수를 차지하여 영농수익의 악화(3가구)와 노동의 과중함(1가구), 건강악화(1가구) 등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 경영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영농의 상업화가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영농수익에 대한 불만이 적은 것은 사례지역 개별농가의 농업경영목적이 상업성의 계고보다는 농가노동력의 연소와 생계목적에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비록 영농목적이 자급적 생계유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영농조건은 농업노동력의 부족이 심화되면 토지이용율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사례지역의 열악한 영농여건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영농을 중단하겠다는 농가는 없고 23농가 모두가 영농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 이들의 영농지속 이유로는 소득향상이 기대되거나 농업의 전망이 밝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전혀 없고, 마땅히 할 일이 없거나(11가구), 생계유지를 위해(9가구), 그리고 배운 것이 농사이기 때문에(3가구) 불가피하게 영농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규모의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확대하지 않겠다는 농가(21가구)가 확대하겠다(2가구)는 농가보다 월등히 우세하며, 경영규모의 확대를 희망하는 농가중에서는 입차지의 확대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경영규모를 늘리겠다는 농가는 소유농지가 없는 1가구이다. 그러므로 농업경영을 통해 소득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례지역에서는 자연적 조건의 개선이 없는 한 재배작물의 변화나 경영규모의 확대가능성은 희박하다.

인간의 거주지 이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고용기회의 확대를 포함하는 도시의 흡인요인과 농촌의 낮은 생산성 및 불리한 여건이 압출요인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산업화이후에는 이촌향도가 일반적 추세이다(Clarke, 1976). 그러므로 현지생활에 대한 거주 만족도는 장래의 인구이동과 촌락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례지역 농가의 경영주들은 대부분이 생활상의

불편함(22가구)을 느끼고 있다. 이들이 현지생활에서 인식하는 가장 불편한 점은 기반시설의 미비(9가구)이며, 영농여건의 불리함(5가구)과 낮은 소득수준(4가구) 및 자녀 교육의 어려움(4가구) 등을 지적하고 있다. 기반시설 중에서는 관공서나 의료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의 낮은 접근성, 위생시설이나 거주환경의 열악함 등은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반면 교통의 불편함과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크게 지적되고 있다. 이는 사례지역이 비록 대도시의 행정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읍 소재지와는 5km 이상 떨어져 있고 간선도로에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은 하루 5차례 왕복하는 시내버스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자녀교육의 어려움 역시 중,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도 5km 이상 멀리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농여건의 불리함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지형적 제약을 당연한 결과로 인식하는 숙명적 태도를 반영하며, 낮은 소득수준에 대한 불만은 소규모의 농업경영과 주곡위주의 자급적 영농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현지생활에 대한 거주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 할 의사가 있는 농가는 배우자 사망 후 자녀가 있는 지역으로 전출하여 동거할 예정인 단 한 가구에 불과하다. 또한 주민들간의 유대는 긴밀하며 마을 공동행사에 대한 참여는 거의가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사례지역에 거주하는 농가의 경영주 대부분이 고령으로서 소득수준이 낮고 생활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여 고향을 떠나기를 싫어하며, 도시 생활에 실패한 후 고향으로 귀향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농가는 부모 부양을 목적으로 8년 전에 고향으로 귀향하여 운수업을 겸업하는 단 1가구에 불과한데, 이는 개별농가의 특수성에서 기인된다. 이 농가의 경영주는 53세로서 2명의 자녀는 각각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촌하면서 취업중이다. 따라서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육문제와 관련한 불편은 없다. 또한 사례농가는 2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불편이 적을 뿐만 아니라 겸업을 하므로 영농조건이 특히 열악한 자경

대도시내 영농조건 불리지역의 농업경영 특성

지는 휴경을 하기 때문에 전업농가에 비해 영농조건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사례지역과 같이 대도시내의 자연적 조건이 열악한 농업지역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과 영농조건에도 불구하고 자급적 생계유지 목적의 영농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동력부족이 심화되면 촌락공동체는 유지되더라도 토지이용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도시내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경우 경제적 측면의 농업경영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자연적 제약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주민의 생활측면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과 도시지역과의 낮은 접근성이 더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일반적으로 소비시장과의 높은 접근성이 유지되는 도시내의 농업은 상업적 작물의 재배와 그에 따른 토지이용의 집약화로 특징 지워진다. 그러나 농업은 필연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에 의존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비록 높은 접근성이 유지되는 도시내의 농업지역일지라도 영농의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은 한계가 불가피하다. 대도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면서도 영농의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경영 특성과 주민생활을 고찰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영주와 농가 구성원의 측면에서 볼 때 오랜 영농지속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영주의 연령이 노령화 되어있고 학력수준이 낮아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은 대체로 낮다. 농가 구성원 중에서 재촌인구율은 높지만 농업노동력은 부부중심의 가족노동력에 의해 주로 충당되므로 양적으로도 부족하다. 부족한 농업노동력은 위탁영농에 의해 보완될 수 있지만 위탁영농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농가의 영농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농조건은 사례지역과 연고가 없는 외지인의 영농목적 이주를 제한하고 있다.

불리한 자연적 조건 때문에 가구당 경영규모가 작고 자급적 생계목적의 농업활동을 유지하며 배미의 평균규모가 평야지역보다 훨씬 작아서 노동의 효율성도 낮다. 경영규모는 경영주의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데, 경영주가 노령화할수록 경영규모가 작고 임차지의 비중이 낮다. 또한 영농조건이 보다 유리한 농지가 선택적으로 임대차 되는 것이 아니라 농가노동력의 연소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영농조건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임대차가 발생된다.

토지이용은 자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일사량 및 수리시설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논보다는 밭의 토지이용율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곡작물로서 벼의 재배를 선호한다. 자경지와 임차지 간에는 재배작물의 차이가 없고 토지상태에 따라 논에서는 벼를, 밭에서는 채소류를 비롯한 농가소비용 작물이 주로 재배된다.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함과 열악한 영농조건 및 낮은 영농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자급적 생계유지 목적의 영농과 촌락공동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불리한 자연적 조건은 영농의 상업화를 제약하여 영농목적의 이주를 제한하고 농가경제의 영세성과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정책적인 지원과 재배작물의 보급이 없는 한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대도시와의 높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영농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 대도시내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업지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개별농가 차원에서 친환경적 농업의 확대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상업성의 확대이다.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상업화가 미진한 것은 토지특성상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대규모로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기농법을 통한 작물재배로 타 지역과 차별화 한 후, 소비자와의 직거래나 생산자 표시를 통한 상품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영농조건 개선을 위한 기반의 확충과 직접 지불제를 포함하는 정부의 지원이다. 과소지역으로서의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의 생산기반조성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때 영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지정리를 통한 규모화와 영농조건의 개선울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토지이용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비해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

는 농가에 대한 지원은 없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적 토지이용으로의 전환이 제한된 농경지라면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아니면 그린벨트내의 경작농가에 대해서는 경작에 따른 보조금이라도 지급할 때 황폐한 농촌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다시 날 수가 있다.

註

- 1) 행정적 구분을 기초로 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로서의 6개 도시를 말한다.
- 2) 농업센서스에 의하면 1990년 우리나라 전체의 개별농가수 1,767,033호 중에서 대도시내의 개별농가 수는 50,496호에 이르며, 전국의 총 경지면적 1,807,054ha 중에서 대도시내의 경지면적은 40,414ha이다. 광역도시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진 1995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개별농가수 1,500,745호 가운데 대도시내의 개별농가 수는 63,564호이며, 총 경지면적 1,657,711ha 중에서 대도시내에 위치한 경지면적은 60,539ha이다.
- 3) 양일간에 걸친 본 조사에는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와 문화지리학 수강자 10여명과 대학원생이 참가하였다. 짧은 장마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준 그들과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준 사례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4) 본리란 지명은 과거 大邱府 仁興面의 소재지에서 유래한 것이며(한국지명총람 5, 한글학회, 1970), 현재 행정구역상 본리 1리와 2리로 구분된다. 본리 1리는 仁興이라 하며, 본리 2리는 본리 1리의 위쪽에 위치하여 上里 혹은 馬飛亭 이나 메뚜장이라 칭하기도 한다(경상북도 지명유래총람, 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84).
- 5) 주민의 대부분은 先祖때부터 사례지역내에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68세 된 한 경영주는 자신이 15대째 현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馬飛亭이란 지명유래에서 볼 때 조선시대에 이전 일 수도 있다.
- 6) 사례지역 농가의 경영주중에서는 김씨가 9가구로서 가장 많다. 그러나 이들도 본관이 김해와 서흥으로 나뉘어지며, 그외는 박씨 4가구, 이씨 3가구, 석씨 2가구, 구씨, 송씨 등으로 다양하다.
- 7) 남자 경영주로서 연령이 44세이며, 처와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남 1녀의 자녀가 사례지역내에 거주하면서 자경지 없이 750평의 토지를 임차경영하고 있다. 사례지역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으며 대도시에서 의류업계에 종사하다가 4년 전에 이주하였는데, 사례지역으로의 전입이유나 전직이유에 대해서는 용답을 꺼리고 있다.
- 8) 1990년의 농업센서스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27.9%, 전체 농가의 42.8%가 농지 임대차에 의해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연구(우종현, 1996)의 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주변 상업적 작물재배지역이 대도시에서 원거리의 자급적 주곡재배지역에 비해 임대차가 더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9) 사례지역에서는 현재 논과 밭은 모두 평당 100,000원~120,000원 정도, 대지는 평당 700,000원 정도로 지가가 형성되어 있지만 매물과 매매가 거의 없다.
- 10) 1995년 농업센서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가당 평균 경영규모는 약 1.10ha이며, 6대 도시내 농가의 평균경영규모는 0.95ha이다.
- 11) 사례지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후 합배미작업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형적 제약 때문에 합배미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비용문제로 실제로는 활발하지 못하다. 토지의 형태와 배미 수, 경사도에 따라 합배미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이하지만 700평~800평 정도의 합배미작업에는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 합배미작업에 드는 비용은 전액 개별농가가 부담하며 정부의 지원이나 융자는 전혀 없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례지역에서는 합배미작업이 미약하며, 특히 임차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합배미작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경지에 비해 합배미 정도가 낮다.
- 12) 사례지역에서 17년 동안이나 이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성기(60세)에 의하면 이장 재직초기에는 약 330마지기(약 66,000평)에 대해 수세를 받았으나, 현재는 수세를 받는 토지가 130마지기(26,00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휴경지는 대부분 마을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토지의 대부분은 외지인 소유이다.
- 13) 사례지역의 홍화재배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면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지급된 시설자금에서 시작되었다. 본리 1리와 2리를 합쳐 1998년 이후 약 1억 6천만원의 시설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전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현재 본리 2리의 경우 전체 홍화재배면적은 약 4,000여 평이며, 이 중에서 시설재배면적이 70% 이상이다.
- 14) 사례지역내에서 40년 이상 영농하면서 임차지를 포함하여 1,730평을 경영하는 경영주의 진술에 따르면, 현재 자신은 270평의 임차지에 홍화를 시설재배하는데 하우스의 설치에만 약 7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배초기 홍화의 노지재배는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홍화를 재배하려면 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도 정부의 보조금

이 없었다면 임두도 못 내었을 것이며, 돈이 있더라도 현지에는 지형적 제약 때문에 시설을 설치할 만한 땅도 없다고 진술.

- 15) 사례지역 전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경운기 9대, 이앙기 3대, 바인더 1대, 동력분무기 1대, 관리기 1대 등이며 콤팩트인이나 트랙터 등과 같은 대형 농기계는 전혀 없다. 이러한 농기계의 보급실태는 우리나라의 평야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16) 사례지역에서 부문별 위탁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면, 마지기(200평)당 논갈이에 2만원, 로타리에 2만원, 모내기에 7만원, 탈곡작업에 3만원이 소요된다. 이 외에도 비료와 농약대금이 약 2만 5천원, 물을 대기 위한 전기사용료를 포함한 수세가 1만 5천원 정도 소요된다. 전기사용료는 기상상태의 영향을 받으므로 해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사례지역의 논농사에서는 위탁작업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이 마지기 당 약 18만원에 이른다. 한편 생산량을 비교할 때 자연적 조건이 양호한 지역의 논농사는 200평 당 쌀 3가마 정도가 생산되는데 비해 사례지역은 경지의 세분화과정에서 논둑으로 상실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실제 평수가 작고 일사량이 부족하여 마지기 당 쌀의 생산량은 평균 2가마 반 정도로 적다.

文獻

가토 고이치, 1999, 한국 가족농의 현대적 위상, *농촌경제*, 22(4), 147~165.
 김기혁, 1991, 촌락과 농경지, *지리학회보*, 33, 1~8.
 김기혁 역, 1999, *서유럽의 농업변화*, 도서출판 한울, 서울(Bowler, I.R., 1996, *Agricultural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박문호, 1999, 쌀 생산비의 부문별 변동요인과 절감

방향, *농촌경제*, 22(2), 53~72.
 박양춘, 1987, 공간발전이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 41~62.
 오내원, 1999,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농촌경제*, 22(1), 89~104.
 우종현, 1996, *한국 임대차농지의 공간분포와 임차농가 행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종현, 1997, 귀향농가의 발생원인과 적응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99~113.
 이재옥, 1999, 농업의 다원적기능, *농촌경제*, 22(2), 39~51.
 이재옥, 2000, 21세기 세계 식량수급의 전망과 과제, *농촌경제*, 23(1), 107~121.
 허길행, 2000, 21세기 농업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 *농촌경제*, 23(1), 1~15.
 형기주, 1993, *농촌지리학*, 법문사, 서울.
 Bowler, I.R., 1985, *Agricultur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9(2), 255~263.
 Bowler, I.R., 1986, *Agricultur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0(2), 249~257.
 Clarke, J.I., 1976, *Population Geography*, Pergamon Press, Oxford.
 Clout, H.D., 1972, *Rural Geography*, Pergamon Press, Oxford.
 Whatmore, S., 1993, Sustainable Rural Geograph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7(4), 538~547.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ricultural Management in the Less Favored Metropolitan Areas.

- A Case study of Bonli, Taegu -

Jong Hyeon Woo*

Summary

Generally speaking, the metropolitan agricultural regions have some advantages from the high accessibility to markets. But agriculture inevitably rests on the biological process. This study shows what characteristics of the agricultural management are found in these less favored metropolitan areas with bad natural conditions and how farm household live there.

From the view point of farm household, the quality of labors they can get is quite low, and insufficient in quantity. The shortage of labor can be made up for the farming on Trust Farming System. And the relatively less favored agricultural conditions prevent people from immigrating into these kind of areas, if they don't have any relationship with there.

With bad natural conditions, the farm households usually cultivate relatively small areas for the purpose of self-sufficiency, and with smaller cultivating units(Baemi) of the land than in open fields. The scale of the agricultural management is largely affected by the ages of agricultural managers. The more aged the managers are, the smaller scale of the agricultural management.

How to use lands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natural conditions such as percentage of sunshine and accessibility to drainage facilities

-the two major factors- and more. Either owner-run farmlands or leased farmlands doesn't show any difference in each growing crop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the lands, rice paddy is used for growing rice and field is used for growing self sufficient plants including vegetables for the farm household.

Although the lack of infrastructure causes the inconvenience of living, and there exist less favored agricultural conditions, this kind of life and agricultural management style -self-sufficiency type- seems to be sustained quite longer. The less favored natural conditions for farming keeps the agricultural management style from being developed to be the level of commercialization. And the poor economic situation of farmers are continuing again and again.

With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 should be two conditions to be established previously if they want to develop these regions. First, each farm household should get to know of the importance of commercialization and try to spread it. The commercialization should be attained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e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eviously established distribution system of the crops. Secondly, there

*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대도시내 영농조건 불리지역의 농업경영 특성

should be a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 support will include the expansion of the infrastructures for farming to improve the farming conditions and the compensation system directly from the government to the farmers.

Key words : agricultural management, agricultural conditions, leased farmlands, accessibility, less favored areas